

'95년도 상반기 북한경제 동향

1995. 9

통 일 원

목 차

1. '95년도 북한의 경제시책방향	1
2. 대내경제동향	7
가. 건설부문	
나. 농림수산업부문	
다. 광공업부문	
라. 수송·통신 및 과학기술부문	
3. 대외경제동향	37
가. 대외경제개방	
나. 대외무역	
다. 남북교역	
라. 대외경제협력	
4. 종합평가	60

1. '95년도 북한의 경제시책방향

- 북한은 김일성 사망에 따라 종래 신년사를 통해 당해년도의 경제시책 방향을 제시해 오던 것과는 달리 '95년도에는 『공동사설』(당보·군보·청년보)의 형식으로 간단히 정책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신하였음.

- 북한이 『공동사설』에서 밝힌 경제부문 시책은
 -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당중앙위 제6기 21차 전원회의('93.12.8)에서 완충기 과업으로 제시한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 방침을 계속 추진해 나가며

 - 전력·석탄·철도운수 등 『선행부문』과 금속공업부문의 모든 생산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 연료·동력문제와 수송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郡을 지방경제발전의 종합적 거점으로 발전시키는 등 郡의 역할을 제고시키는데 주력한다는 것으로 요약됨.

- 또한 북한 보도매체는 『공동사설』의 경제부문 시책과 관련, 각급 기관·단체 및 경제단위의 『반향』을 잇따라 내보내면서 완충기('94~'96년)의 이른바 『혁명적 경제전략 관철을 위한 투쟁』을 적극 독려하였음.
- 그 주요 내용은 김정일을 받들고 오직 ‘자력갱생·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해당부문에 주어진 과업을 무조건 관철하라는 것으로 일관
- 각급 경제단위의 『반향』에서는
 - 김정일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과업이 나선다고 해도 결코 두렵지 않다고 강변하면서, 김일성의 지난해 신년사를 『유훈』으로 삼아 생산과 건설에서 혁신을 일으킬 것을 선동하였으며
 - 각지 공장·기업소 및 건설공사를 맡고 있는 군부대 등의 생산 실적 및 공사 진척상황을 잇따라 소개하고
 - 올해 생산목표를 당창건 50주(10.10)이전까지 조기 달성할 것을 촉구, 노력경쟁을 부추기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였음.

〈 반향 요지 〉

- 『국가계획위원회』부위원장 이태일(1.1 중방)
 - 올해에도 농업·경공업·대외무역을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첫째가는 힘을 넣어야 하고 전력공업, 석탄공업, 철도운수를 앞세우고 금속공업을 계속 강화해야 함.

- 『농업위원회』위원장 김원진(1.1 중방)
 - 우리 농업근로자들은 쌀로부터 먼저 공산주의를 실현하려는 아버지 수령님의 생전의 염원을 심장깊이 새기고 새해 첫 아침부터 농업생산에 박차를 가하겠음.

- 『자강도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주산(1.1 중방)
 - 우리 정무원 일군들은 전천군 상업관리소와 맹산군 일군들처럼 인민을 위해 지혜와 힘을 바치겠음.

- 평양시 보통강구역 책임비서 한동수(1.2 중방)
 - 올해 우리 구역에서는 인민소비품 생산을 정상화하고 『8.3 인민소비품』생산을 지난 해 보다 1.5배로 높이며 여러가지 내부원천들을 적극 탐구 동원할 목표를 세웠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최희정(1.3 중방)
 - 새해에도 우리는 새로운 농업생산기술 도입문제, 비료·비날론·연·아연생산 정상화 문제, 대용연료 적극 이용 문제, 제품 질 높이는 문제 등에 힘을 집중하겠음.
- 『철도부』부부장 최학진(1.3 평방)
 - 당이 지펴준 5.18 무사고 정시견인 초과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서 충성의 기적 소리가 방방곡곡에서 세차게 울려 퍼지도록 하겠음.
-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당비서 한창수(1.4 중방)
 - 우리 전력생산자들은 자력갱생·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올해 기어히 전력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창조하여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기쁨을 드릴 것을 맹세함.

- 한편, 북한은 2.7 인민문화궁전에서 박성철(부주석), 김영남(부총리), 최광(인민군 총참모장), 당비서 등 당·정 고위간부들을 대거 참석시킨 가운데 『청산리정신·청산리방법 창조 35주년 기념 중앙보고회』를 진행하였음.

- 이는 북한 경제관리지도층의 해이해진 『사회주의적 사상』재무장을 위해 '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5년마다 개최되고 있는 정례 행사로서
- 처음에는 단순히 김일성 현지도 기념보고회 형식으로 개최되었으나 '90.2월 제30주년 행사를 계기로 『중앙보고회』로 행사규모를 확대시켰음.

〈 청산리정신 · 청산리방법 기념보고회 동향 〉

일 자	내 용	장 소
'80.2.6	○ 청산리 현지도 20돌 기념보고회	청산리 현지
'85.2.7	○ 청산리 현지도 25돌 기념보고회	"
'90.2.6~8	○ 청산리정신 · 청산리방법 창조 30돌 기념 중앙연구토론회 및 중앙보고대회	인민문화궁전
'95.2.7	○ 청산리정신 · 청산리방법 창조 35돌 기념 중앙보고회	"

- 이번 중앙보고회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 『청산리정신 · 청산리방법』이 김일성 현지도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찬양 또는 『청산리정신 · 청산리방법』의 우월성을 내세우기보다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촉구하는데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임.

- “김정일 동지의 두리에 그 어느때 보다도 일심단결하여 당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야 한다”고 역설

〈 홍성남의 기념보고 내용 비중 〉

김정일 충성촉구	김일성 찬양	청산리방법 우월성	과업제시	기타
36.6%	20.6%	10.3%	28.6%	3.9%

- 동 보고회를 통해 제시된 경제과업을 보면
 - △ 부정부패 문제 해소 △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 계속적 추진 △ 모든 사업에서 규율·질서 확립 △ 郡 역할 제고를 통한 인민생활 향상 △ 증산·절약투쟁 강화 등임.
- 여기에서 북한이 부정부패 해소를 최우선적인 과업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북한경제가 장기적인 침체로 주민들의 경제사회적 일탈 행위가 경제조직 체계와 질서를 위협할 만큼 구조화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 요컨대 '95년도 북한의 경제시책방향은
 - 무엇보다도 북한이 직면한 총체적인 경제난을 타개, 회생시킬만한 뚜렷한 대안이 없는데다가

- 경제정책의 대폭적인 변화는 오히려 체제유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때문에
- 김일성의 『유훈』실현을 통치 명분으로 내걸고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를 표방하는 이른바 ‘완충기 경제전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2. 대내경제동향

가. 건설부문

- o '95년도 상반기중 북한의 경제건설은 전반적으로 전년동기에 이어 극도로 침체된 분위기에서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음.
 - 기간중 완공·조업된 건설실적은 총 14건으로서 건수면에서 경제건설이 극도로 침체되었던 전년동기 수준(19건)보다 줄어들었고
 - 건설대상의 내용면에서도 대체로 목욕탕 건설, 단거리 철도전기화 공사 등 소규모적인 단위사업에 불과하였으며

- 특히 평양-향산간 고속도로, 12월화력발전소 등 기왕에 건설을 추진해 오던 대규모 단위건설사업은 공사진척이 매우 부진한 상황을 보였음.

〈 '92~'95년도 상반기중 월별 북한경제 건설실적 〉

(단위 : 건, 완공·조업기준)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총 계	월평균
'92년	0	19	8	40	5	2	74	12
'93년	2	6	2	7	3	2	22	4
'94년	1	3	1	14	0	0	19	3
'95년	0	3	2	7	0	2	14	2

- 종래 북한경제건설동향을 보면, 김부자의 생일시기인 2월과 4월 중에 치적 과시의 일환으로 건설실적을 집중 발표함으로써 표면 상으로는 동시기를 전후하여 건설활동이 매우 활발하였던 것처럼 나타났었음.
- 그러나 금년도 2월과 4월중 북한의 경제건설실적을 보면 총 10건으로서 전년동기 실적 17건을 크게 밑돌므로써 김부자 생일시기의 경제건설 치적화 노력마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음.

- 금년도 상반기중의 건설실적을 내용면에서 보면 완충기 경제전략인 3대제일주의 방침을 관철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음.
 - 2~4개월 정도의 단기공사로 완료되는 지방주택건설, 목욕탕, 세수비누공장 등 주민생활 향상 또는 경공업부문과 직결되는 건설공사와
 - 수출증대를 위해 해산청년광산, 성천광산 등 기존 유색금속 광산의 능력확장공사가 비교적 활기를 보였으며
 - 청수도 간석지, 길성포 합작회사(영농물자 생산공급) 등 농업 관련 건설공사가 완공·조업되었음.

- 한편, 북한은 투자재원 부족에도 불구하고 청류다리 2단계 건설, 당창건 기념탑 건설 등 정치사상적 목적의 건설공사에 역량을 집중하는 특이동향을 보였음.
 - 북한은 '94. 11월~'95. 4월 기간중 공장·기업소, 협동농장 등 총 6,000여개의 단위에서 315,000여명을 동 건설공사에 동원했다고 발표

- 특히 금년 4월에는 『평양 축전』등 정치사상적 행사를 개최, 해외 인사 초청 경비 등 낭비적 재정지출을 계속함으로써 경제 건설에 필요한 투자부족을 더욱 심화시킨 것으로 분석됨.

○ 이로 볼 때 '95년도 상반기중 북한의 경제건설동향은

- ① 재정사정 악화에 따른 투자재원 부족, ② 정치사상적 목적의 건설 및 행사 개최로 인한 낭비적 재정지출 증대, ③ 구조적인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애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경제 건설이 전년동기보다 더욱 침체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95년도 상반기중 경제건설실적 〉

(완공·조업기준)

월별	건 설 실 적
1월	○ 없음
2월	○ 평남도 탄광에 창광원식 종합목욕탕 완공(2.11) - 안주, 순천, 덕천, 개천, 북창지구 탄광 ○ 회령-남양간 철도전기화공사(2.13) ○ 신의주 화장품공장내 세수비누공장 완공(2.15) - 연건평 3,700m ²
3월	○ 혜산청년광산 선광장 건설 완공(3.15) ○ 임훈풍이 사업하는 유색금속광산 개건확장(3.15)
4월	○ 평양 통일거리 소재 메아리음향사 조업(4.11) - 연건평 3,500m ² , 음향설비생산 종합기지 ○ 평남 은덕군 인민병원 완공(4.11) - 연건평 5,200m ² , 김정일 감사전달 ○ 청수도 간석지 준공(4.12) - 1,000여정보 ○ 성천광산 현매갱 조업(4.12) - 연간 수만톤의 유색금속 생산능력 보유

월별	건 설 실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원 인회암광산 조업(4.13) ○ 간니-시정간 철도전기화 공사 완공(4.13) ○ 신의주시 길성포 합작회사 조업(4.13) - 북한의 종합무역회사와 중국 요녕민족물자정무공사 합작
5월	○ 없음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연제재공장 현대화공사 완공(6.12) - 목재가공처리능력 : 연간 수십만^m ○ 청진시에 1,000세대 규모의 고층아파트 완공(6.16)

나. 농림수산업부문

[농 · 축산업 동향]

- 북한당국은 식량증산 문제가 체제유지의 관건이라는 인식하에 연초부터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 목표를 무조건 달성하라’고 강력히 지시하였음.
- 1.1 발표된 당보·군보·청년보 『공동사설』의 『반향』을 통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당이 농업부문에 제시한 과업을 무조건 실현할 것을 촉구

○ 특히 과거 김일성의 농촌 현지도 행적을 기념하는 『기념
보고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김일성의 유훈』을 앞세워 금년도
곡물생산 목표인 정보당 10~11톤을 달성할 것을 촉구하였음.

- 평남 온천군 김일성 현지도 1주년 기념보고회(6.17)

- 황해북도 농업부문 현지도 20주년 기념보고회(6.25)

※ 최근 5년간 북한의 정보당 곡물생산량은 조곡기준으로 대략
4톤내외로서 금년도 곡물생산목표는 당초부터 실현불가능한
목표임.

○ 또한 근로의욕 상실에 기인한 생산침체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
농업부문 경제선동의 중점방향을 하부 생산조직 및 『젊은 세대』
들의 생산활동 독려에 두었음.

- 평양시 농촌경리부문 분조장 회의(1.10~11)를 소집하고 분조장
들의 책임성과 역할 제고 문제 강조

- 전국 리 농근맹위원장 회의(2.1~2)를 이례적으로 개최하고
『리』단위의 초급농근맹위원장들의 정치경제적 결속 강화

- 전국 농촌청년분조·청년작업반 열성자회의(2.27)를 개최하고
곡물생산 목표 달성 촉구

- 상반기중 농업부문의 생산활동을 보면
 - 1/4분기중에는 봄철 영농기를 앞두고 농사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아래 영농자재 확보 및 수리·점검, 『흙갈이 작업』(객토 작업)에 주력하였으며
 - 2/4분기중에는 봄철 가뭄현상에 따라 농업용수 확보에 주력하는 가운데 모내기의 조기 완료 및 주인정신에 입각한 농작물의 비배 관리를 독려하였음.

- 특히 5월중순~6월초순 기간중에는 남포직할시 강서구역 청산 협동농장의 모내기 작업(5.12)을 개시로 각지 협동농장들이 모내기를 시작하였음.

〈 최근의 모내기 작업 동향 〉

구분	'88년	'89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시작	5.10	5.5	5.11	5.10	5.9	5.5	5.5	5.12
종료	5.31	5.31	6.5	5.31	6.3	5.31	6.3	6.7

- 아울러 '94.12월 국영농장으로 개편된 평양시 만경대구역 및 평남 숙천군 농업연합기업소에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의 조속한 정착을 강력히 촉구하였음.

- 민주조선(1.15)은 “군농업연합기업소는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넘기는 합리적인 형태와 방법”이라는 제하의 논설을 통해
- 郡 농업연합기업소는 관련기관에 대한 질서 정연한 관리체계를 조속히 수립, 관리운영사업을 빠른 시일안에 정상화할 것을 강조
-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郡 농업연합기업소의 정상화 방침으로는
 - 郡 농업연합기업소와 산하 기업소·농장들을 모두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2중독립채산제를 실시할 것
 - ※ 2중독립채산제 : 하부단위조직인 공장·기업소가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상위조직인 연합기업소·총국·관리국 등도 각각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 이중적인 독립채산제 구조를 지칭
 -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철저히 지켜 농업노동자들의 열의를 불러 일으킬 것(노력평가 기준을 새로운 조건에 맞게 바로 정하여 종업원들이 일한 것 만큼, 번 것 만큼 정상적으로 분배할 것)
 - 郡을 도시와 농촌을 연결시키는 거점으로, 농촌관리의 종합적 단위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할 것 등임.

- 이로 볼 때 북한은 지난해말 일부지역의 협동농장들을 『전인민적 소유』의 국영농업연합기업소로 개편하였으나
 - 아직까지 군내 협동농장들과 농기계수리소, 농기구공장, 관개관리소, 가축방역소 등의 전문 농업기업소들과의 정연한 기업관리체계는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축산부문에서는 당면한 북한주민의 식량문제 해소와 함께 특히 축산부문의 『군민일치』운동을 통해 군인들에게 육류를 공급할 데 대한 당의 방침('88년말 처음 제시)를 관철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음.
 - 『전국축산부문 열성자회의』 개최(3.2~3)

- 이와 관련, 김정일은 북한 전역의 각도·시·군과 국영 및 협동농장에 감사를 전달, 당의 축산정책 관철과 인민군 원호사업을 독려하였음.
 - 각도 농촌경리위원회, 180개 시·군과 3,120여개의 국영 및 협동농장에 감사 전달

- 한편 북한은 상반기중 도시의 사무직 근로자나 각급 공장·기업소 근로자들, 또는 각급 학교 졸업생들에 대하여 농촌으로의 이주를 적극 권장·유도하였음.

- 김정일은 농촌으로 이주한 외교부 직원에 감사 전달(4.23)
- 이는 농업노동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든 부문일 뿐아니라 농촌 생활환경이 열악하여 주민들간에 농촌 및 농업노동 기피 풍조가 확산되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이와 함께 모내기철에 접어들면서 예년처럼 금년도에도 대대적인 농촌일손돕기운동을 전개하였음.
- 각급 당조직의 주관아래 학생, 공장·기업소 근로자, 행정기관 종사자들을 직접 농촌에 파견, 모내기 참여 및 경제선동 업무 추진(5.27 중방)
- 주북 불가리아 및 베트남의 대사 및 대사관 직원들이 모내기 지원(5.26 삼지강 협동농장, 5.27 장진협동농장)
- 황해남도 기관·기업소, 가두인민반들에게 농촌일손돕기 차원에서 거름, 영농자재, 각종 소농기구 등을 농촌에 지원(5.27 중방)
- 상반기중 북한은 경지면적 확장의 일환으로 연초부터 이미 개간된 서해안 간석지에 대한 『내부망공사』(수로개설·토지정리·하천 제방 쌓기 등)를 적극 추진하였음.

- 노동신문 등 각종 선전매체들은 “아무리 간석지를 많이 개간 하여도 거기에 곡식을 심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소용 없다”고 주장하면서
 - “올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미 개간된 간석지의 내부망 공사를 빨리 끝낼 것”을 촉구
- 이는 북한이 “정보당 알곡 수확고를 높이는 방법만으로는 알곡 생산을 늘이기 어렵다”는 인식아래
- 투자재원 및 노동력 부족 등으로 새로운 간척사업에 착수하기가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 기 개간된 간석지의 『내부망 공사』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곡물생산량을 조금이라도 늘여보자는 의도인 것으로 분석됨.
- 이에 따라 염주·황해·선천 간석지건설 종합기업소, 응진간석지 건설사업소 등 북한의 주요 간석지 건설기업소들은
- 황해남도의 강령 간석지, 청수도 간석지를 비롯, 지난해 완공한 평안남도의 금성간석지, 평안북도의 곽산 간석지 등의 내부망 공사에 주력하였음.

- 상반기중 간석지의 농경지화 실적은 평남 온천군 광량만 일대의 금성간석지(약 3,300정보 규모)에 『국영6월9일농장』과 『국영 금성농장』 등 2개의 국영농장이 새로 조성되었음.
- 또한 '88.3월이후 서해안 간석지 개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황해남도 강령군 소재 청수도 간석지 개간공사(총면적 1,000여 정보)가 공사 착수 7년만에 완공되었음. ('95.4.12)

[임업동향]

- 북한은 '92.10월 산림조성·보호 및 이용 등 임업발전에 관한 『정무원 결정』을 채택한데 이어 12월에는 산림자원의 보호관리와 지도 통제를 전반적으로 규정한 『산림법』을 제정한 바 있음.
 - 임업발전에 관한 『정무원 결정』은 '92.8월 임업노동자질을 기해 김정일이 제시한 과업(“임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관철을 위한 행정적 조치임.

- 이에 따라 최근 북한의 산림정책은
 - 산림조성을 위해 △ 지리적 특성과 현실적인 조건에 맞는 조림 계획 수립 △ 조림사업소와 조림작업반의 역할 증대 △ 녹화 근위대 활동 강화 △ 기관·기업소들의 담당림(林)제 실시 등을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는 한편
 - 임업의 현대화에도 관심을 기울여 △ 임업 과학연구사업의 강화 △ 임업부문 기술인재 양성 △ 외국과의 임업과학기술교류 확대 등을 중점적인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있음.

- 그러나 각종 산업용재 및 신탄재 생산을 위한 과도한 남벌, 농경지 확장을 위한 다락밭 건설 등으로 아직까지 산림보존 상태는 매우 열악한 실정임.
 - 산림면적이 '70년 당시 990만ha에서 '94년 현재 940만ha로 감소

- 이와 관련, 금년도 상반기중에는 『봄철나무심기 월간』(3~4월)을 이용, 나무심기 궤기모임을 잇따라 개최하는 가운데 산림조성 사업에 주력하였음.
 - 3월중순 『전국 청소년·학생들의 봄철 나무심기 궤기모임』을 시발로 각 지역별 궤기모임 개최

- 3.21~22 농근맹과 여맹 등 사회단체 중심으로 궐기모임을 진행하고 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
- 식수절(4.6)에는 강성산(총리), 이종옥(부주석) 등 당·정 간부들과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만경대, 대성산 혁명열사릉 등에서 기념식수
- ※ 북한은 1963.7 내각명령으로 식수기간을 제정한 이래 지금까지 봄(3~5월)과 가을(10~11월) 년 2회 주민들을 동원, 나무심기를 집중적으로 독려하고 있음.
- 대외적으로는 러시아 정부와 『 '95~'98년 러시아 영토내의 통나무 생산, 목재의 종합적 가공, 산림 복구 및 협조에 관한 협정 』을 2.24 평양에서 조인하였음.
- 동 협정은 러시아 임업자원 개발에 관한 일곱번째의 갱신 협정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북한측 벌목공(7천여명)에 대한 인권보장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하루 8시간 노동규정, 북한 벌목공의 러시아외 여타국 여행 허용 등 러시아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며 이를 위해 러시아 사법기관의 벌목장내 조사 권한 부여

- 또한 동 협정에서는 종전과는 달리 현지 북한 별목공의 노동규범과 급료지급 문제 등은 러시아 법률에 따라 북한측이 결정토록 하고 수송비부담 문제는 북한측이 별목장에서 북한 국경까지의 수송료를 부담하는 대신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타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종전에는 별목한 목재를 북한 국경까지 무상 운반
- 동 협정의 체결로 러시아측은 연간 5,700만달러 상당의 소득을 예상하고 있는 바 이는 북·러 임업분야 협조협정 내용이 종전보다 북한측에 불리하게 갱신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수산업 동향]

- 최근 북한은 산란기 어류 및 치어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연근해 정착성 어자원이 감소되고 있는데다가 어로장비의 노후, 어로 기술 낙후와 함께 극심한 유류난에 기인하여 어선의 출어 일수가 줄어드는 등 조업 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음.
- '90년대들어 북한어선의 출어율은 30%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어획고는 매년 감소추세
- 어획고의 구성은 명태 70%내외, 정어리 20%내외, 기타 10%수준 점유

- 이에 따라 북한은 대일본 수출전략 상품인 김, 다시마, 대합, 모시조개 이외에 게, 골뱅이 등 정착성 어패류의 양식에 주력,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음.

〈 최근 북한의 수산물 생산량 〉

(단위 : 만톤, %)

'90	'91	'92	'93	'94
145 (△9.9)	120 (△17.2)	114 (△5.0)	109 (△4.4)	99.8 (△8.4)

주 : ()는 전년비 증가율임.

- 특히 금년 상반기중에는 어부절을 계기로
 - 지난해와 같은 수산물 생산부진에서 벗어날 것을 다짐하면서, 노동당 제6기 제21차 전원주의 관철을 위해 수산부문 관계자들에게 김, 다시마 등 양식부문의 증산을 촉구하였음.

※ 어부절 : '57.3.22 김일성이 신포수산사업소 등 동해지구 수산부문을 현지지도한 것을 기념하여 제정

- 한편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를 통해 전문 5장 49조의 『수산법』을 채택하였음. (2.22 민주조선)

- 동 신문은 제1장 『수산법의 기본』에 대한 개요만을 보도하였기 때문에 『수산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 수산자원의 조성, 수산물의 생산·가공 등 수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 수산분야에서 세계 여러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으로 보아
 - 기존의 수산업 관련 규정을 체계화하고 현실에 맞게 종합적으로 수정·보완한 것으로 보임.

〈 기존 수산업관련 법령 〉

<p>'47. 3. 11 : 수산기업소 규정</p> <p>'49. 2. 4 : 수산제품 검사에 관한 규정</p> <p>'49. 12. 22 : 어업에 관한 규정</p> <p>'58. 11. 24 : 천해양식과 담수양어 사업을 급속히 발전시킬 데 대하여</p>
--

다. 광공업부문

[경제선동 동향]

- 연초에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새해 각오를 새롭게 하고 주민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각급 공장·기업소별로 공동사설(1.1) 관철 쫓기모임을 연이어 진행하였음.

- 김정일을 중심으로 단결, 총진군할 것을 결의

< 공동사설 관철 쫓기모임 동향 >

일 자	공 장 · 기 업 소
1. 6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평양선교피복공장·서평양기관차대·김책제철연합기업소·용성기계연합총국·강계청년발전소
1. 8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신흥화학연합기업소·평양창광옷공장
1.10	평양곡산공장·개성수예수출품공장·6.4차량종합기업소
1.12	남포제련종합기업소·갑산임산사업소

- 또한 지난해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기회있을 때마다 각종 기념 보고회를 개최하고 김일성 『유훈』관철 촉구와 함께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결의하였음.

- 봉화화학공장 창립 20주년 기념보고회(3.23)
 - 김일성·김정일 평안북도 현지도 10주년 기념보고회(5.5)
 - 김일성·김정일 6.4차량종합기업소 현지도 30주년 기념보고회(5.8)
 - 『속도전청년돌격대』창설 20주년 기념보고회(5.15)
 - 보통강 개수공사 착공 49주년 기념모임(5.20)
 - 김정일의 검덕광업연합기업소 현지도 20주년 기념보고회(6.30)
- 특히 총 281개에 달하는 당중앙위원회 구호를 발표한 이후(4.30) 부터는 『당중앙위 구호관철 쫓기모임』을 잇따라 개최하여 이완된 공장·기업소의 생산분위기를 일신하는데 주력하였음.
- 완충기 경제전략 방침인 농업·경공업·무역의 3대 제일주의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 ‘정무원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의 통일적 지도체제 확립’을 주장, 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강조하고
 - ‘자체의 힘으로 郡내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 郡의 자립 강화를 촉구

[광업동향]

- 상반기중 북한은 석탄생산을 늘이기 위해 탄부들에 대한 각종 노력경쟁 유도 및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였음.
 - 도 행정경제위원회 주관하에 기술혁신 토론회, 신년 공동시설 해설 모임 등을 개최
- 또한 북한 근로자들의 탄·광산 노동기피현상으로 탄광 및 광산의 인력난이 심화됨에 따라 농업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광업부문에 대해서도 청년들과 사무원들을 집단 배치시켰음.
 - 북한은 김일성사후 1년동안에 탄광·광산·농촌지역에 진출한 제대군인과 청년들이 7만여명에 이른다고 보도(7.4 평방)
- 그러나 석탄공업부문의 신규 투자는 재정사정 악화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노후화된 채탄장 설비의 보수·교체도 예년수준을 넘지 못하였음.
- 이로 볼 때 상반기중 북한의 석탄생산은 노동력의 추가 배치에도 불구하고 채탄장비의 노후, 동발나무 부족, 갱도 심부화 등으로 인해 그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분석됨.

- 한편 광산개발에 있어서는 무역제일주의 관철을 위해 유색금속 광산을 중심으로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었음.
 - 해산청년광산 선광장 완공(3.15), 임훈풍이 일하는 유색금속광산 확장(3.15), 성천광산 현대갱 조업(4.12), 영원인회암광산 조업(4.13) 등

- 광물생산에 있어서는 북한 최대의 유색금속광산인 검덕광업연합기업소가 연, 아연 등 수출물량 확보와 관련 비교적 활기를 나타냈음.

- 검덕광업연합기업소에서는 김정일 현지도 20주년이 되는 7.1까지 금년도 생산목표 달성을 촉구하면서 연초부터 광물생산 증대를 독려해 왔음.
 - 김정일, 동 광산에 『친필 서한』(4.12) 및 감사(5.6) 전달

- 이에 따라 검덕광업연합기업소는 각종 광물생산 증대를 위해
 - 이른바 사회주의 노력경쟁운동의 일환으로 『전국청년 고속도 굴뚝기 경기』, 『충성의 1만톤소대 창조운동』 등을 전개하는 한편

- 생산인력 확보를 위해 고등중학교를 갓 졸업한 청소년들 및 제대군인들을 대거 배치하기도 하였음.
- 또한 마그네샤크링카의 대미 수출 길이 열린 것과 관련 각지의 마그네사이트 가공시설을 대대적으로 보수하는 등 생산증대에 주력하였음.
- 1.21 미국은 북한산 마그네샤크링카 수입 허용
- 6.4 북한 무역실무대표단이 방미, 수만톤 규모의 마그네사이트 수출계약 체결
- 전반적으로 볼 때 상반기중 북한의 광업부문은 일부 광산이 생산에서 전년동기보다 비교적 활기를 보이기도 했으나 대부분의 탄·광산은 침체를 보임으로써 그 생산실적이 예년수준을 상회하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됨.

[공업동향]

- 상반기중 북한의 공업부문은 경공업제일주의·무역제일주의 방침 관철을 위해 내수보다는 수출용 제품생산에 주력하였음.

- 특히 섬유·봉제공업 부문에서는 남한, 일본 등의 위탁가공 주문 물량 증대에 따라 생산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였음.
 - 남북교역에서 북한으로부터의 위탁가공 반입규모(승인기준)가 16백만달러로 전년동기보다 57.8% 증가
 - 위탁가공제품이 대부분인 섬유류의 대일본 수출액은 44.2억엔으로 전년동기보다 24.1% 증가
- 지방공업부문에서도 당의 무역제일주의 방침에 따라 지방의 내부예비를 동원한 수출품 증산에 역량을 집중하였음.
 - 돌공예품, 약초·초물제품 등 자급이 가능한 원료를 이용한 수출품의 생산에 주력
- 그러나 주민생활 향상과 직결된 내수부문에서는 중앙당국의 뚜렷한 신규 투자나 원자재 공급없이 지방 자체적으로 해결토록 함으로써 생산이 부진하였음.

〈 북한의 주요 방직공장 〉

공 장 명	생 산 능 력	비 고
평양종합방직 (평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물생산 : 1억m(연간) · 염색가공 : 1억 3천만m · 생산품 : 면사, 면직물 (광목, 폴덴 등), 견직물 (비단류), 각종 내의류, 메리야스, 양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업원 12,000명 · 1949년 착공 · 1955년 구소련 지원으로 복구 · 1961년 시설확장
강계방직 (자강도 강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사 : 17,000톤 · 직 물 : 6,600만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3년 건설 · 1969년 동독기계 도입 · 1972년 완공
사리원방직 (황해도 사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사 : 17,000톤 · 직 물 : 6,570만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2년 완공 · 일본 설비 및 기술 도입
개성방직 (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사 : 3,000톤 · 직 물 : 2,000만m · 생산품 : 비단, 광목, 옥양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4년 개성직물 협동조합 으로 발족
구성방직 (평북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사 : 13만톤 · 직 물 : 3,000만m · 생산품 : 고급견직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1년 소련원조로 착공 · 1962년 시설확장
함흥모방직 (함남 함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직물 : 14만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업원 : 5,000명 1964년 : 소련원조로 착공 · 1967년 완공·조업
신의주방직 (신의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모사 : 1만8천톤(스포 70%, 양모 30%) · 방모직물 : 450만m · 염색가공 : 5,370만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업원 : 3,500명

- 에너지 생산부문은 동부문이 『선행부문』으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증산과 절약』운동을 전개하는데 그쳐 전년동기의 생산수준을 넘어서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채탄조건 악화와 노동생산성 하락으로 석탄생산의 침체상태 지속
 - 전력생산은 봄철 가뭄현상, 석탄공급 차질 등에 기인하여 수·화력발전소의 가동을 하락
- 기간중 원유, 코크스 등 광물성 연료의 수입규모도 대폭적인 감소를 보였던 전년동기의 수준을 다소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에너지의존도가 가장 큰 중국으로부터의 광물성 연료 수입규모가 전년동기의 9,672만달러에서 9,587만달러로 다소 감소
- 기계·금속·화학·건설 등 북한의 기간산업부문에서는 에너지 부족, 기초 및 중간 원료의 공급부족, 기술낙후 등으로 예년과 마찬가지로 가동율이 매우 저조하였음.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95년도 상반기중 북한의 광공업부문은
 - 최근에 지속되고 있는 경제침체로 재정사정이 크게 악화되어 있는 상황하에서

-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각공장·기업소들로 하여금 투자재원의 자체조달을 원칙으로 하는 『증산·절약투쟁』에만 의존한 결과
- 동 부문의 건설 및 생산동향은 위탁가공무역에 힘입어 활기를 보인 경공업부문의 수출공장들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전년 동기의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라. 수송·통신 및 과학기술부문

[수송·통신]

- '95년 상반기중 북한은 “철도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여 인민경제의 수송 수요를 원만히 보장한다”는 기본 방침에 따라 수송체계의 주축을 이루는 철도의 수송능력 제고에 주력하였음.
- 상반기중 철도건설 실적을 보면 회령-남양간(2.13), 간니-시정간(4.13) 철도전기화 공사가 완공·개통되었으나 새로운 철도부설이나 확장은 투자재원 부족으로 착수되지 않았음.
- 함북 『회령-학송』간(168km) 철도전기화 2단계공사는 당창건 50주년 기념일(10.10)이전 완공목표로 건설 진행중

- 철도수송관리면에서는 『5.18 무사고 정시건인 초과운동』을 강화하는 한편, 철도의 화물수송능력 제고를 위해 차량정비 및 보수공장들로 하여금 철도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독려하였음.
 - 지난 6개월동안 1,000여량의 화차수리, 300여리 구간의 철길노반 정리, 차량정비에 필요한 48종 1만여점의 부속품 공급 주장
- 그러나 재래식의 수송체계, 선로시설 및 장비의 노후화, 전력 공급의 불안정 등의 취약점을 개선하지 못한 가운데 경제선동의 강도만을 높였을 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음.
- 도로수송 및 해상수송에 있어서는 유류의 절대부족으로 수송실적이 전년동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특히 원거리 수송실적은 극히 부진하였음.
 - 『해운연합총국』은 연초부터 △ 고장 등으로 방치된 선박들의 적기 수리 △ 효율적 선적 및 하역작업 △ 선박의 운항 횟수 증대 등을 『자력갱생』으로 해결할 것을 강조
- 공로수송을 보면 상반기중 이렇다할 만한 수송실적은 없으나 평양-대북간 전세기 취항, 스위스와의 민간 정기항로개설 협정 체결(6.16) 등 국제항공 개설에는 높은 관심을 보였음.

- 또한 평양에서 『철도협조기구구성원국 아시아지역 나라들의 '95년도 무역화물수송계획 합의회의』(2.27~3.5)를 개최하고
 - 중국·러시아·몽골·카자흐·키르기즈스탄 등과 『'95년도 무역화물수송계획에 관한 의정서』를 조인하였음.

- 한편 통신부문에서는 체신수단의 현대화를 위해 통신 선로의 케이블화, 통신망 중계소의 증설 및 수동식 교환기의 자동화 기기로의 대폭적인 교체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음.

- 상반기중 북한은 UNDP 및 ITU의 지원을 받아 평양과 일부 지방 도시간의 통신망 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특히 평양-함흥간 통신망 현대화공사 적극 추진

[과학기술]

- 북한은 3.27~30 기간중 제10차 『중앙과학기술축전』을 개최하고 전체 과학기술자들이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김정일의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음.

- 그러나 동 축전은 예정보다 열흘이상 일정을 단축하여 폐막함으로써 “과학연구사업에서 큰 성과를 이룩했다”는 선전과는 달리 그 성과가 부진했음을 시사하였음.
- 김정일은 4.28 『국가과학원』을 현지지도함으로써 김일성사후 10개월만에 처음으로 경제부문에 대한 현지지도 활동을 실시하였음.
- 김정일의 국가과학원 현지지도는
 - 내용면에서는 ① 공업의 주체성 강화 ② 최첨단 과학기술 도입 ③ 연구성과 보급 적극화 ④ 과학·기술자간 협조 연구체계 강화 ⑤ 과학연구 토대 강화 등으로서 종전과 크게 다를 바 없으나
 - 김일성사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현지지도의 대상을 국가과학원으로 선정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됨.
- 이는 그동안 김정일이 “과학기술적 문제를 잘 풀어야 자력갱생의 원칙도 잘 관철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각종 관련사업에 간여해 왔다는 점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낙후된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정책적 의욕을 반영하는 것임.

- 2차에 걸친 『과학기술발전3개년계획』(1차 : '88.7월~'91.6월, 2차 : '91.7월~'94.6월) 및 『2000년까지의 과학기술전망목표』 등은 김정일 주도로 추진
- 또한 상반기중 북한은 과학기술증진을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과학기술활동을 적극 독려하였음.
 - 『대학생 과학탐구상 쟁취운동』을 비롯 학생과학연구소 활동, 과학연구발표회, 창안품전시회, 문답식 학습경연 등 다양한 사업 전개
- 대외적으로는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의 교류·협력문제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특히 제23차 『제네바 국제발명 및 새기술·새제품 전람회』(3.31~4.9)에 참가하는 등 낙후된 과학기술발전 문제에 의욕을 보였음.
 - 중국과 『해양부문 과학기술협조 합의서』(4.5), 이란과 『1995~1997 과학기술·교육·문화 계획서』(5.17) 조인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은 과학기술발전에 대해 상당한 의욕을 갖고는 있으나 정치경제적인 대내외 여건 불비로 선진 과학기술의 도입이나 개발에 있어 그 성과가 매우 부진한 것으로 분석됨.

3. 대외경제동향

가. 대외경제개방

- '95년 상반기중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나진·선봉지역의 개발을 도모하는 기본 전략이 계속 추진되었음.
- 특히 나진항 개발, 국제 통신센터 건설,공단개발 등이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되었음.
- 상반기중 나진·선봉지대의 개발현황을 보면
 - 철조망 설치(40km) 및 나진호텔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으며
 - 나진-훈춘간 광케이블 부설공사와 나진 국제 통신센터의 기초공사,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후창저수지 저수능력 확장공사 등이 추진되었음.
- 상반기중 북한은 대만, 독일, 중국 등지에서 투자설명회, 세미나 개최, 상담회 등을 통해 서방기업이 나진·선봉지역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호소하였음.

- 3.6 대만 국제무역협회 초청 투자설명회 개최
 - 3.30 독일 동아시아협회 주관 세미나 개최
 - 4.3 독일 아·태연구소 주관 경제협력촉진 설명회 개최
 - 6.22 중국 심천 상담회 개최
- 그러나 동 지역의 Infra 시설의 미비, 사회·정치적인 폐쇄성 때문에 그동안 북한당국의 적극적인 해외 자본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음.
- 남한기업을 포함한 서방측 기업들은 현지 여건을 조사하는 정도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투자에는 소극적인 입장
- 한편, 북한은 '92~'94년에 이어 '95년 상반기중에도 외국투자 유치와 관련한 법령 정비를 계속하여
-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대외경제계약법』(2.22), 『보험법』(4.6) 등을 새로 제정하였음.
- 또한 미·북한 기본합의서 합의에 따라 북한의 정무원에서는 『미국상품 반입 제한조치 및 미국무역선박 입항금지 조치』를 해제(1.9)한데 이어 미국도 제한적이거나 대북한 거래를 허용(1.21)하였음.

- 이와 같은 미·북한의 일련의 조치들은 매우 초보적이고 상징적인 수준에 불과하지만 그동안 단절되었던 쌍방간 인적·물적 교류의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나. 대외무역

- '95년도 상반기중 북한의 무역실적은 중국, 러시아 등 주요 무역 대상국과의 교역이 대폭 감소함으로써 대일본 교역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냈음.
- 무역구조 분석 결과 '95년도 상반기중 북한의 무역실적은 전년 동기비 6.1% 감소한 9.3억달러(수출 2.5억달러, 수입 6.8억달러)로 잠정 평가

< '95년 상반기 북한의 대외무역액 잠정 평가 >

(단위 : 억달러)

구 분	총 액	수 출	수 입
중 국	2.7(3.4)	0.3(1.2)	2.4(2.2)
일 본	2.4(1.8)	1.4(1.1)	1.0(0.7)
러시아	0.3(0.6)	0.0(0.1)	0.3(0.5)
기 타	3.9(4.1)	0.8(1.2)	3.1(2.9)
총 계	9.3(9.9)	2.5(3.6)	6.8(6.3)

※ ()내 수치는 전년동기 북한의 무역실적

[중 국]

- '95년 상반기중 북한의 대중국 무역실적은 2.7억달러로 전년동기보다 1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대중국 수출은 전년동기비 70.1% 격감한 3천만달러에 불과
- 대중국 수입은 전년동기비 7.5% 증가한 2.4억달러를 기록

< '95년 상반기 북한의 대중국 무역실적 >

(단위 : 천달러, %)

구 분	'95년 상반기	'94년 상반기	증 감 율
총 액	272,086	336,477	△19.1
수 출	34,559	115,622	△70.1
수 입	237,527	220,855	7.5

※ 자료 : 中國 海關統計 ('95.6월호)

※ 주 : 중국의 FOB, CIF 기준 통계

- 특히 북한의 수입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수출이 대폭 감소함으로써 무역총액이 전년동기비 19.1%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역수지 불균형도 더욱 심화되었음.
-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폭이 전년동기의 1억 523만달러 → 2억 297만달러로 약 2배 확대

○ 상반기중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출상품은 철강, 수산물, 광산물, 비료, 목재품 등으로 이들 품목의 수출규모는 대중국 총 수출액의 83.5%를 차지하였음.

- 주요 수출품중 가장 비중이 큰 강철(총 수출액의 33.6% 점유)과 비료 등 일부 품목은 중국측의 수요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보다 대폭적인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시멘트, 수산물, 광산물 등 주종 품목들의 수출 부진으로 전반적으로는 전년동기보다 70.1% 감소

〈 '95년 상반기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출상품 구조 〉

(단위 : 천달러, %)

구 분	금 액	구 성 비	전년동기실적	증 감 율
비금속제품 (강 철)	12,837 (11,618)	37.1 (33.6)	77,477 (75,356)	16.5 (15.4)
동물성 생산품 (어류·갑각류)	6,042 (5,942)	17.5 (17.2)	7,743 (7,738)	△22.0 (△23.2)
광물성 생산품	4,894	14.2	13,943	△64.9
화학공업제품 (비 료)	2,934 (2,571)	8.5 (7.4)	1,351 (150)	2.2배 (17.1배)
목 재 품 (목재·목탄)	2,142 (2,122)	6.2 (6.1)	2,901 (2,901)	△26.2 (△26.9)
소 계	28,849	83.5	103,415	△72.1
기 타	5,710	16.5	12,207	△53.2
합 계	34,559	100.0	115,622	△70.1

- 반면 북한의 수입상품을 살펴보면 방직용 섬유원료, 전기기기 등이 수입증가를 주도하여 수입규모가 전년동기보다 다소(7.5%) 늘어났음.

〈 '95년 상반기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입상품 구조 〉

(단위 : 천달러, %)

구 분	금 액	구 성 비	전년동기실적	증 감 율
광물성 생산품 (광물성연료)	101,842 (95,873)	42.9	101,747 (96,716)	0.1 (△0.9)
방직용 섬유· 제품	23,602	9.9	17,822	32.4
기계류 (전기기기)	23,178 (17,203)	9.8	9,284 (5,555)	2.5배 (3.1배)
식물성 생산품 (곡물)	22,727 (5,981)	9.6	25,460 (13,830)	△10.7 (△56.8)
화학제품	16,083	6.8	20,591	△21.9
소 계	187,432	78.9	174,904	7.2
기 타	50,095	21.1	45,951	9.0
합 계	237,527	100.0	220,855	7.5

- 특히 북한의 식량난 및 에너지난과 관련, 기간중의 수입실적을 보면

- 중국측의 홍작에 따른 식량사정 악화, 북한의 어려운 외환사정 등으로 곡물 수입액이 598만달러로서 전년동기의 1,383만달러 보다 크게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 원유, 코크스 등 광물성 연료의 수입액도 전년동기의 9,672만 달러에서 9,587만달러로 다소 줄어드는 등 중국으로부터의 식량, 에너지 수입량은 금년 상반기중에도 더욱 줄어들고 있음.
- 또한 북한의 대중국 교역상품 구조는 수출입 공히 상위 5대 품목군이 75~80%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수출입 상품이 일부 몇몇 품목에 집중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 북한의 대중국 교역규모는 '93년이후 매년 현저한 감소추세를 보여 왔음을 감안할 때 금년도 교역규모는 지난해의 6.2억달러 수준을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중국은 생필품과 공업용 원자재의 주요 공급자로서, 북한 주요 수출상품의 수요시장으로서 북한에 대해 특수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 앞으로 북한이 수출산업구조 개편, 시장 다변화 노력 등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북한무역의 대중국 의존도는 30% 이하로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

[일 본]

- '95년 상반기중 북한의 대일무역실적은 220.6억엔(2.4억달러)으로 전년동기보다 1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대일수출은 126.3억엔(1.4억달러)으로 전년동기비 7.8% 증가
- 대일수입은 94.3억엔(1.0억달러)으로 전년동기비 25.0% 증가

< '95년 상반기 북한의 대일 수출입 규모 >

(단위 : 백만엔, %)

구분	총 액	수 출	수 입	증감율
1월	3,017	2,227	790	16.9
2월	3,542	2,001	1,541	30.9
3월	4,041	2,585	1,456	△3.7
4월	3,639	1,837	1,802	16.1
5월	3,529	1,848	1,681	23.3
6월	4,288	2,131	2,157	11.1
합계	22,056	12,629	9,426	14.6

* 자료 : 東アジア 經濟情報(1995.8月號)

* 주 : 일본의 FOB, CIF기준 통계

- 그러나 수출보다 수입의 증가폭이 커 무역수지 흑자폭은 전년 동기보다 감소한 것이 특징임.

- 대일본 무역수지 흑자폭은 전년동기의 3,930만달러 → 3,293만 달러로 감소

- 상반기중 북한의 대일본 주요 수출상품은 위탁가공용 섬유제품, 수산물, 비금속제품, 벗짚, 광물성 생산품 등으로 이들 품목군의 수출규모는 대일본 전체 수출액의 91.4%를 차지하였음.
- 특히 전년동기에 비해 현저한 증가를 보인 수출품목들은 광물성 생산품중 천연모래(9배), 마그네샤크링카(5.3배) 등과 귀금속(31배), 목재(3.8배) 등임.

< '95년 상반기 북한의 대일본 주요 수출상품 구조 >

(단위 : 천엔, %)

구 분	금 액	구 성 비	증 감 율
섬유·제품	4,424,339	35.0	24.1
광물성·생산품	2,499,486	19.8	25.3
비금속·제품	1,974,228	15.6	35.2
식량·생산품	1,467,013	11.6	△29.4
광물성·생산품	1,184,211	9.4	△12.4
전기기기	415,285	3.3	12.4
목재·제품	218,708	1.7	64.5
조제식료품	156,688	1.2	△70.7
귀석·귀금속	82,977	0.7	31배
기타	206,479	1.7	
합 계	12,629,414	100.0	7.8

- 북한의 주요 수입상품을 살펴보면, 방직용 섬유원료, 기계류, 전기기기, 수송기기, 비금속제품 등으로 이들 품목군의 수입규모는 대일본 전체 수입액의 69.6%를 차지하였음.
- 특히 전년동기에 비해 현저한 증가를 보인 수입품목은
 - 잡품 가운데 철강제의 조립식 건축물이 10배 증가하였고 이 밖에 냉장고 등 냉동기기가 5.9배, 바니쉬, 페인트 등 화학제품이 3.4배의 증가를 나타냈으며
 - 북한이 중국으로 밀반출해 왔던 수송기기는 승용차가 3.8배나 증가한 반면 화물자동차는 5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95년 상반기 북한의 대일본 주요 수입상품 구조 >

(단위 : 천엔, %)

구 분	금 액	구 성 비	증 감 율
섬유·제품	3,200,885	34.0	18.5
기계류	1,130,799	12.0	△9.5
전기기기	965,490	10.2	46.9
수송기기	785,118	8.3	12.2
비금속·제품	484,904	5.1	13.9
플라스틱·고무	478,907	5.1	15.2
잡품	461,764	4.9	75.7
화학제품	315,357	3.3	63.8
기타	175,569	1.9	11.3
기타	1,427,373	15.2	
합 계	9,426,166	100.0	25.0

- 따라서 북한의 대일본 교역상품 구조는 수출입 공히 상위 5대 품목군에 70~90%이상 차지함으로써 수출입 상품이 일부 몇몇 품목에 집중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 금년도 북한의 대일본 무역규모는 최근의 교역상승세와 함께 하반기중 쌍방간 무역이 증가하는 일반적인 무역추세 변동을 감안해 볼 때 지난해의 4.9억달러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러 시 아]

- '95년 상반기중 북한의 대러시아 무역실적은 총 3,300만달러로 전년동기보다 41.1% 격감한 것으로 나타났음.
 - 대러시아 수출은 전년동기비 72.7% 격감한 150만달러에 불과
 - 대러시아 수입은 전년동기비 37.6% 감소한 3,150만달러를 기록

< '95년 상반기 북한의 대러시아 무역실적 >

(단위 : 천달러, %)

구 분	'95년 상반기	'94년 상반기	증 감 율
총 액	33,000	56,000	△ 41.1
수 출	1,500	5,500	△ 37.6
수 입	31,500	50,500	△ 72.7

- 상반기중 러시아와의 교역은 수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수입상품은 자동차 및 기계설비 등 목재가 수입총액의 87.6%를 차지하였음.

- 북한의 주요 수출상품은 소비재와 기타 잡품임.

〈 '95년 상반기중 북한의 대러시아 수출입 상품구조 〉

(단위 : 천달러, %)

구 분		금 액	구 성 비
수 출	소비재 부품 등	1,000	66.7
	기 타	500	33.3
수 입	자동차 및 기계설비	17,400	55.2
	목 재	10,200	32.4
	철 강 · 금 속	1,200	3.8
	면 화	1,200	3.8
	기 타	1,500	4.8

※ 러시아 FOB, CIF 기준 통계

- 이와 같은 급감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경우 금년도 북한의 대러시아 무역은 지난해의 1.4억달러보다 크게 감소하는 극도의 부진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여타 국가]

- '95년 상반기중 북한은 스위스에 49만달러를 수출하는 대신 193만달러를 수입, 무역수지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었음.
- 포르투갈과는 금년도 1/4분기중 수출이 전년동기보다 82.9% 감소한 반면 수입은 2.4배로 대폭 늘어나 전반적으로는 126%가 증가한 115천달러(수출 1천달러, 수입 114천달러)를 기록하였음.
- 칠레와의 무역현황을 보면 4월 현재까지 수출은 17만달러, 수입은 226만달러로서 전년동기 수준을 겨우 유지하였음.
- 홍콩과는 금년도 1/4분기중 수출은 전년동기보다 20.2% 감소하였고 수입 역시 9.7% 감소하여 전반적으로는 13.2% 감소한 18,330천달러(수출 5,670천달러, 수입 12,650천달러)를 기록하였음.
- '95년 1/4분기중 말레이시아와의 교역에 있어서도 전년동기 대비 49%가 감소한 64만달러에 불과, 급감세를 기록하였음.
- 북한의 대말레이시아 수출주력 제품인 화학제품의 수출이 전년도 10% 수준에도 미달하는 4.6만달러에 불과

- '95년 4월 현재까지 파키스탄과의 교역을 보면 섬유제품을 수출하는 대신 섬유사를 수입하는 등 소규모(총 109만달러 상당)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년동기보다는 약 8배가량 급증하였음.
- 싱가포르와는 '95년 1/4분기중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64.4%의 큰 폭으로 감소, 20만달러를 기록한 반면 수입은 183.7%의 급증세를 보여 1,217만달러를 기록하였음.
 - 교역상품이 일부 품목에 국한되어 있으며 품목별 교역량도 심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
- 루마니아와의 교역은 '90년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금년도 들어와서도 다시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내 사실상 거래가 거의 미미한 실정임.
 - '95년 1/4분기중 교역규모 10만달러(수출 9만달러, 수입 1만달러) 수준
- 헝가리와의 '95년도 상반기중 수출 21.8만달러, 수입 14.4만달러로 소규모의 거래에 그쳤음.
- '95년도 상반기중 여타국과의 교역규모는 무역구조 분석 결과 수출 0.8억달러, 수입 3.1억달러로 총 3.9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다. 남북교역

- '95년도 상반기 남북한 교역실적(통관기준)은 165,441천달러로서 전년동기 82,394천달러에 비해 약 2배가 증가하였음.
- 반입 통관실적은 전년동기보다 56.3% 증가한 115,251천달러
- 반출 통관실적은 전년동기에 비해 5.8배가 증가한 50,190천달러

〈 '95년 상반기 남북교역 실적(통관기준) 〉

(단위 : 천달러, %)

구 분	'95.1~6월	'94.1~6월	증 감 율
총교역 규모	165,441	82,394	2배
반 입	115,251	73,758	56.3
반 출	50,190	8,636	5.8배

- 특히 6.21 중국 북경에서 가진 남북당국간 회담(차관급)에서 남한이 쌀 15만톤을 무상 제공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6월말 현재 까지 1만톤이 북측에 인도되었음.

- 한편 상반기중의 남북교역 승인실적은 172,953천달러로 전년동기의 92,671천달러에 비해 86.6% 증가하였음.
- 이중 반입은 131,195천달러로 전년동기의 83,165천달러에 비해 57.8% 증가했으며
- 반출은 41,758천달러로서 전년동기의 9,506천달러에 비해 4.4배로 크게 증가했음.
- 남북교역 승인 규모중에서 위탁가공이 차지하는 비율은 반입에서는 12.2%, 반출에서는 28.1%, 전체 규모에서는 16.1%를 차지하였음.
- 주요 위탁가공품목 : 각종 직물, 남성용 자켓, 바지, 셔츠 등

〈 '95년 상반기 주요 반·출입 품목 구성 〉

구분	'95년 상 반 기	'94년 상 반 기
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강금속(80.6%) - 아연괴, 금괴, 은괴, 알루미늄 ○ 섬유류(7.2%) - 남자셔츠, 바지, 면타월, 아크릴사 ○ 농·림수산물(6.6%) - 호두, 낙화생, 팥, 들깨 ○ 기타(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강금속(74.7%) - 금괴, 아연괴, 빌레트, 은괴 ○ 섬유류(11.3%) - 남자자켓, 바지, 면타월, 남자셔츠 ○ 농·림수산물(7.4%) - 호두, 고사리, 낙화생, 한약재 ○ 기타(3.2%)

구분	'95년 상 반 기	'94년 상 반 기
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류(38.4%) - 직물류, 의류부속품, 지퍼 ○ 농·림수산물(35.4%) - 쌀, 밀가루, 호두 ○ 화학제품(9.5%) - 병커C유, 플라스틱관 ○ 기타(1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류(77.3%) - 직물류, 의류부속품, 오리털, 단추 ○ 화학제품(15.4%) - 벤젠, LDPE필름, 페놀 ○ 수산물(1.1%) - 냉동 오징어 ○ 기타(6.2%)

라. 대외경제협력

- 상반기중 북한은 고갈된 경제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연초부터 식량, 에너지, 면화 등 자원외교를 강도높게 추진하였음.
- 당·정부 차원의 경제대표단은 물론, 각국별 친선협회와 직맹, 사로청 등 외곽단체 등에서도 대표단을 구성하여 경제자원 외교에 총력
 - ※ 주요 대상국가는 태국·중국·러시아·인도·호주·미국 등 자원수출국과 탄자니아·네팔·방글라데시 등 비동맹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음.
- 특히 심각한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과업으로 설정하고 태국·중국·인도·미국 등 곡물수출국에 대한 곡물 도입 상담을 적극 전개하였음.

- 그러나 상반기중 곡물도입 실적은 북한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환부족, 국제적인 신용실추 등으로 큰 성과는 없었음.
 - 북한은 외환부족으로 2~3년 연불의 구상무역방식을 제시하였으나 상대국은 대부분 자국 사정을 들어 거절
 - 상반기중 곡물도입 실적 : 태국 11만톤, 중국 5만톤 등
- 이에 따라 북한은 일본 연립3여당 대표단의 방북을 계기로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남한은 물론 일본측에 쌀 제공을 요청하였음.
- 이에 대해 남한은 북측의 요청을 동포애적 차원에서 받아들여 쌀 15만톤을 무상 제공키로 하고(6.21) 6월말까지 1만톤을 북측에 인도하였음.
- 일본에 대해서도 북한은 5.24~28에는 이성록(국제무역촉진위원장을, 6.23~7.1에는 이종혁(아·태 평화위 부위원장)을 파견하고 쌀 제공을 요청하였음.
 - 일본은 6.30 북한과의 쌀 협상에서 북측에 총 30만톤의 쌀(무상 15만톤, 유상 15만톤)을 지원 또는 연불 수출키로 결정
- 한편 상반기중 북한은 낙후된 과학·기술부문의 육성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깊은 관심을 기울였음.

- 제23차 제네바 국제발명 및 새기술·새제품 전람회 참가
(3.31~4.9)
- 『조-중 해양부문 과학기술협조 및 교류에 관한 합의서』조인
(4.5)
-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과학부 공학 및 기술국장 『보리스 베르
코프스키』 북한 방문(4.15~19)
- 조-중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34차회의 개최(5.12)
- 러시아 과학기술협조대표단 북한 방문(5.28)
- 상반기중의 합영·합작 실적으로는 4.13 북한의 종합무역회사와
중국 요녕민족물자정무공사와 합작으로 신의주시에 길성포 합작
회사를 조업한 것외에 이렇다할 만한 실적이 없음.
- 전반적으로 볼 때 '95년도 상반기중 북한의 대외경제협력활동은
 -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식량, 에너지 등 경제자원 부족이 북한의
자력갱생 노선을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화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인 자원 외교활동을 전개하였으나
 - 외환부족, 대외 신용도 저하 등으로 그 성과는 극히 부진하였던
것으로 평가됨.

〈 '95년도 상반기 북한의 경제협력협정 체결 현황 〉

시기	대 상 국	내 용
3. 5	철도협조기구	○ 아시아지역 성원국 회의, '95년도 무역화물수송 계획 의정서 조인
4. 5	중 국	○ 조-중 해양부문 과학기술협조 및 교류에 관한 합의서 조인
5. 12	"	○ 국경하천운항협조위원회 제34차 회의 합의서 조인
	"	○ 과학기술협조 협정 조인
5. 13	리 트 바	○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 조인
5. 17	이 란	○ 1995~'97년도 과학기술·교육·문화교류에 관한 계획서 조인
6. 8	몽 골	○ 수의 방역 및 수의 검역협조 협정 조인
6. 16	탄자니아	○ 공동위원회 의정서 조인
"	스 위 스	○ 정기항로에 관한 협정 조인

〈 '95년 상반기중 주요 경제협력 활동 〉

시 기	내 용
1. 9	○ 정무원, 미국상품 반입 제한조치 및 미국무역 선박 입항 금지조치 해제 결정
2. 2	○ 경수로 제공관련, 미·북 협상 공동보도문 발표
2. 7	○ 조선-몽골 친선협회 대표단(단장:재정부장 윤기정) 몽고 향발

시 기	내 용
2. 8~11	○ 북한 경제대표단(단장: 대외경제위원장 이성대)태국 방문 - 태국 수상 접견(2.8)
2. 9~3. 5	○ 북한-우크라이나 친선협회 대표단(단장: 체신부장 김학섭) 우크라이나 방문
2. 21~25	○ 쿠바 정부 무역경제대표단(단장: 리카르도 C. 루이스 무역 상) 북한 방문
2. 21~3. 4	○ 호주-조선이사회 대표단(단장: 빌 하틀리), 만경대 등 참관
2. 23~3. 5	○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및 조-중 친선협회 대표단 (단장: 국가과학기술위원장 최희정), 북한 방문
2. 25	○ 러시아 정부 임업대표단(단장: 알렉산드르 칼빈), 만경대 등 참관
	○ 당대표단(단장: 황장엽), 네팔·파키스탄 방문차 평양 출발
2. 27~3. 5	○ 철도협조기구 아시아지역 성원국회의(러시아·몽고· (중국·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개최 - '95년도 무역화물 수송계획 의정서 조인
2. 28~3. 11	○ 정부경제대표단(단장: 대외경제위원장 이성대), 방글라 데시 방문 - 방글라데시 대통령 예방(3.7)
3. 1~3. 4	○ 대만·미국 관광여행사 고찰단 북한 방문 - 『평양 국제체육 및 문화축전』 행사관련
3. 16	○ 조-러 경제 및 문화협조 체결 46돌즈음 친선모임 (주북 러시아 대사관)
3. 23	○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우 일행, 평양 출발 - 베를린 개최 제3차 경수로 제공협상 참가차
3. 28	○ 일본 연립3여당 대표단 평양 도착 - 조·일회담 재개를 위한 합의서 채택

시 기	내 용
3.31~4. 9	○ 제23차 제네바 국제발명 및 새기술·새제품 전람회에 참가·입상 -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 수상
4. 5	○ 조·중 해양부문 과학기술협조 및 교류에 관한 합의서 조인
4.15	○ 외교부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 - 미·북한 경수로 협상 진행(4.12~13) 결과 서명
4.15~19	○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과학부 공학 및 기술국장 『보리스 베르코프스키』 북한 방문
4.18~5. 1	○ 태국 국회의원 외교위원회 대표단 및 정부대표단 방북 - 강성산 총리, 태국정부 경제대표단 『우타이 핼차이춘』 상업상 일행과 면담(4.21)
4.22	○ 제3차 베를린 경수로 전문가 협상 결렬관련 외교부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
4.24~5.14	○ 조선직맹대표단(단장: 직총중앙위 부위원장 이진수) 중국·인도 방문
5.12	○ 조선국제합영회사 제8차 이사회회의(만수대의사당) ○ 북·중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34차 회의 ○ 조·중 국경하천운항협조위원회 제34차회의 합의서 조인
5.13	○ 북한-리트바,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 조인
5.22	○ 철도대표단(단장: 박용석), 베트남 향발
5.25	○ 이성록(국제무역촉진위원장), 일본 방문중 조건없는 남한 쌀 수용 의사 표명
5.26	○ 나웅배 통일부총리, 조건없는 대북 쌀제공 발표
5.28	○ 러시아 과학기술협조대표단, 평양 도착 ○ 북한·잠비아, 당·정대표단 회담 진행 - 당비서 황장엽, 잠비아 부통령 접견(5.30)

시 기	내 용
5.30	○ 일본 종합연구개발 이사장 평양 도착
6. 1	○ 북한 상업부대표단, 중국 향발
6. 5	○ 북한, 일본 연립3여당 통해 남한 쌀 수용 의사 표명
6. 7	○ 총련 젊은 상공인 조국방문단, 평양 도착 - 단장: 손진수(재일본 조선인 상공연합회 부부장)
6. 8	○ 북한-몽골, 수의방역 및 수의검역 협조 협정 조인
6.13	○ 사로청 대표단(단장: 최용해), 네팔 향발
6.14~16	○ 정부대표단, 탄자니아 정부대표단과 회담 - 북한-탄자니아간 공동위원회 의정서 조인
6.17	○ 북경에서 남북간 차관급회담 개최 ○ 벨라루시 정부경제대표단, 평양 도착 ○ 미국 증유전문가협상 대표단, 평양 도착
6.21	○ 북경의 남북회담에서 남한이 북측에 쌀 15만톤을 무상 제공한다는데 합의
6.23~7. 1	○ 이종혁(아·태 평화위 부위원장), 쌀 협상차 방일
6.23	○ 러시아 연방 교통성 대표단, 평양 도착
6.24	○ 북한 체신대표단, 중국 향발 - 단장: 김학섭 체신부 부장
6.27	○ 프랑스 경제사절단, 평양 도착 - 단장: 뫼에르 쉐이라
6.30	○ 북한-일본 협상에서 북측에 쌀 30만톤(무상 15만톤, 유상 15만톤)을 제공키로 합의

4. 종합평가

- '95년도 북한의 경제시책은
 - 그동안 북한이 추진해 온 석탄·전력·수송 등 『선행부문』 우선의 경제운용 기조를 견지하는 바탕위에서
 - 당 6기 제21차 전원회의('93.12.8) 결정에 따라 완충기('94~'96년)의 중점과업으로 설정된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 방침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었음.

- '95년도 상반기중 북한경제는
 - 최고인민회의(제9기 8차) 불개최로 금년도 예산을 확정짓지 못한 가운데 재정을 파행적으로 운용한 결과,
 - 대내적으로는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원인 선행부문의 생산이 부진을 면치 못함에 따라 제조업 생산이 전반적으로 활기를 잃었으며
 - 대외적으로도 최대 교역대상국인 중국과의 무역이 격감한데다가 여타국과의 무역도 일본을 제외하고는 북한의 경제침체와 맞물리면서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동향을 보였음.

- 대외경제개방면에서는 북한당국의 적극적인 해외 자본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방기업들이 실질적인 투자에 소극적 입장을 보여 뚜렷한 성과가 없었음.
- '95년도 상반기 산업부문별 생산동향을 보면
 - 농업부문은 지속적인 식량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연초부터 노동력 집중 배치, 간척지의 농경지화 등 곡물증산을 위한 영농 활동이 적극 전개되었으나 후진적 영농체계, 영농자재 부족 등으로 목표에는 크게 미달한 것으로 보이며
 - 건설부문은 재정부족으로 대규모 건설사업보다 목욕탕, 세수비누 공장 등의 소규모적인 단위사업에 국한함으로써 전년동기 수준을 밑돌았고
 - 광공업부문 역시 위탁가공제품을 생산하는 일부 경공업 공장들을 제외하고는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난으로 각공장·기업소의 가동율이 전년동기 수준을 겨우 유지하는데 그친 것으로 평가됨.
- '95년 상반기중 북한의 대외무역은
 - 수출이 크게 위축되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수입은 늘어남으로써 무역수지가 전년동기보다 더욱 악화되었고

- 국가별 무역에 있어서 아직도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 3개국에 편중(60%이상)되어 무역 다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 수출입상품 구조면에서도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일부 몇몇 품목에 70~80%이상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 북한의 무역기반이 장기적 경제침체, 품질조약 등으로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반영하였음.
- 이를 종합해 볼 때 상반기중의 북한경제는
- 획일적인 중앙집권체제에서 오는 경제흐름의 경직성, 근로자의 생산의욕 감퇴, 부정·부패현상 만연 등 구조적 문제가 조금도 개선되지 못한데다가
 - 재정부족에도 불구하고 종래와 같이 정치우선적으로 경제를 운용,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함으로써
 - 전년동기의 경제침체가 호전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심화된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체제개혁 등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노력이 없는 한 하반기에도 상반기의 경제침체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부 록>

'95년도 상반기 북한경제일지

- 1. 1 . 『노동신문』·『조선인민군』·『로동청년』 공동사설
“위대한 당의 영도를 높이 받들고 새해 진군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자” 보도
- 1. 4 . 2.8 직동탄광, 인민군 강진섭 소속부대, 문덕군 동림
협농 등 각지에서 새해 총진군 위한 궐기모임
- 1. 6 . 천리마제강연합소, 남흥청년화학기업소, 신의주방직공장,
북창화력연합기업소 등 각지에서 새해 총진군 위한 궐기
모임 진행
- 1. 7 . 정무원 각부·중앙기관, 새해 첫 금요노동 실시
· 용성기계총국 등 6개 기업소 새해 총진군 위한 궐기모임
- 1. 9 . 정무원, 미국상품 반입제한 조치 및 미국 무역선박 입항
금지 조치 해제 결정
· 김정일, 김치생산 공업화에 기여한 5개구역과 군원호사업
에 감사 전달
- 1.10 . 김정일, 군민일치 모범단체 및 개인에 감사 전달
- 1.11 . 평양 곡산공장, 개성 수예수출품공장, 6월4일차량종합
기업소 등에 새해 총진군 위한 종업원 궐기모임
- 1.13 . 김정일, 농업제일주의 관철 유공 6개군 선동원에 감사
전달

- 1.14 · 중앙광물자원조사단 창립 40돌 기념보고회
(1.13, 서윤석·현용진 참가)
- 1.15 · 전국청년전위들의 충성의 결의모임을 검덕광업연합기업소에서 진행(사로청 최룡해·전영봉 등 참석)
- 1.16 · 김정일, 인민군 원호와 탄광지원 사업에 모범을 보인 남포지구 수출품가공사업소·남포시 와우도구역 장공장·광복백화점 등에 감사 전달
- 1.18 · 김정일, 평북도 당 및 도내 시·군·당 행정경제일군들에 감사 전달
- 1.19 · 김정일, 당창건 기념탑 주변 원림조성 위해 향나무 등 전달
· 김정일, 평양-함흥간 통신망공사 유공단위 및 일군들, 돌격대원, 건설자들에 감사 전달
- 1.25 · 김정일, 지진피해 재일동포들에 100만달러 위문금 송금
· 김정일, 국가계획위 초급 당비서 임완철에 감사 전달
- 1.26 · 미·북 제2차 경수로 제공협상 북측대표 김정우 평양 출발
· 노동당 대표단 황장엽, 덴마크 방문차 출발
· 북한 적십자, 지진관련 일본 적십자에 위문금 20만달러 송금
- 총련 이진규가 전달

- 1. 27 · 김정일의 위문금 감사 재일본 조선인중앙대회 조선문화회관에서 개최
 - 『평양체육·문화축전』참가 조총련 대표단(단장:총련 사무총국 부총국장 정광우), 평양 도착
- 2. 2 · 경수로 제공관련, 미·북 협상 공동보도문 발표
 - 전국 리 농근맹위원장 회의(2.1~2, 인민문화궁전), 김중린·최성숙 등 참석
- 2. 4 · 흥남비료연합기업소·용성기계연합총국 등 김부자의 함남 현지지도 30돌 기념보고회
- 2. 7 · 김일성의 청산리정신·청산리방법 창조 35돌기념 중앙보고회(인민문화궁전), 박성철 등 참석, 평양시 인민위원장 강현수 사회
 - 조선-몽고 친선협회 대표단(단장:재정부장 윤기정) 몽고 향발
- 2. 8 · 김정일, 군원호사업 모범 황남 일군에 감사
- 2. 8~11 · 태국수상, 북한 경제대표단(단장:대외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성대), 태국 방문
 - 태국 수상 접견(2. 8)
- 2. 9 · 김정일, 군민일치모범 대외경제위 등에 감사

- 2.9~3.5 · 북한-우크라이나 친선협회 대표단(단장: 체신부장 김학섭), 우크라이나 방문
- 2.10 · 김정일화 온실 개관(평양시 동대원 구역)
- 2.11 · 미·북 경수로 제공협상 북한 대표단 귀환
 - 북한 정부경제대표단(단장: 이성대), 태국 방문후 귀환
 - 대홍단군·갑산군, 김일성화·김정일화 온실 건설
- 2.14 · 김정일, 회령-남양간 철도전기화공사 참가자들에 감사
- 2.15 · 김정일, 재일교포 자녀 위한 130차 교육원조비·장학금 송금
- 2.17 · 이종욱, 태국 자유정의당 대표단과 담화 및 연회 (고려호텔)
- 2.25 · 당대표단(단장: 황장엽), 네팔·파키스탄 방문차 평양 출발
 - 쿠바정부 무역경제대표단(단장: 리카르도 C. 루이스 무역상) 귀국(2.21 입북)
 - 러시아 정부 임업대표단(단장: 알렉산드르 칼빈), 만경대 등 참관
- 2.26 · 김정일, 인민군 원호사업 모범단위들에 감사 전달
 - 철도협조기구 아시아지역 회원국 대표단(러시아·몽골·중국·카자흐스탄·키르기즈스탄), 평양 도착

- 2. 28
 - 전국 농촌청년분조·청년작업반 열성자회의 개최
(2.27 평양)
 - 정부 경제대표단(단장:대외경제위원장 이성대) 방글라데시 방문차 평양 출발
 - 남포유리연합회사·남포시 예술단, 금성뜨락또르종합공장 등지에서 김부자 현지도 기념보고회 진행

- 3. 1
 - 호주-조선이사회 대표단(단장:빌 하틀리) 만경대 등 참관
 - 김정일, 평양전동기공장 등 인민군 원호사업 모범단위 및 근로자에 감사 전달
 - 김일성·김정일 부자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현지도 30돌 기념보고회 개최(2.28)
 - 대만·미국 관광여행사 고찰단 평양 도착(2.28)
 - 평양 국제체육 및 문화축전행사 관련

- 3. 2
 - 김정일, 당의 축산정책 관철 및 인민군 원호사업 모범단위에 감사 전달
 - 각도 농촌경리위원회, 180개 시·군과 3,120여개의 국영 및 협동농장
 - 김부자, 대형가공모선 백두산호 현지도 30돌 기념보고회 개최(3.1 양화수산사업소)
 - 부총리 홍성남, 호주·조선이사회 대표단(단장:빌 하틀리)과 담화(만수대의사당)

- 3. 3
 - 전국 축산부문 열성자회의 개최(3.2~3 인민문화궁전)
 - 평양시 문수거리에 『고려의학종합병원』건설 진행
 - 당대표단(단장: 황장엽) 네팔 수도 카투만두 도착

- 3. 4
 - 제5수력발전소 건설종합기업소에 당중앙위 감사문 전달 모임(3.3 함남도 현지)
 - 대만 관광고찰단 평양시내 참관(3.2~3)
 - 국가관광총국, 대만·미국 관광 고찰단 위해 연회 마련(3.3 만수대예술극장)
 - 총련상임위 책임부부장 허종만 일행 귀국(2.26 입북)
 - 대만·미국 관광여행사 고찰단 귀국(3.1 입북)
 - 호주-조선이사회대표단(단장: 빌 하틀리) 귀국(2.21 입북)

- 3. 5
 - 농업근로자절
 - 북조선 토지개혁 법령 발표('46.3.5) 기념
 - 철도협조기구 아시아지역 성원국회의(2.27~3.5) 종료
 - '95년도 무역화물 수송계획 의정서 조인
 -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및 조-중 친선협회 대표단(단장: 국가 과학기술위원장 최희정) 귀국(2.23 출국)
 - 조선-우크라이나 친선협회대표단(단장: 체신부장 김학섭) 귀국(2.9 출국)

- 3. 7
 - 당대표단(단장: 황장엽),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 도착

- 3. 9 · 김정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국가과학원 용접연구소 · 용성기계연합총국 · 흥남비료연합연구소 등에 감사 전달
- 3.10 · 김정일, 서평양베아링공장 등에 감사 전달
 - 중방, 방글라데시 방문 정부경제대표단(단장:이성대) 방글라데시 대통령 예방(3.7) 보도
- 3.11 · 정부경제대표단(단장:이성대) 방글라데시 방문후 귀국 (2.28 출국)
- 3.12 · 김정일, 군민일치 모범단위인 보통강구역 당위원회 · 만경대영예군인만년필공장 · 장산전기공장 등에 감사 전달
- 3.15 · 김정일의 함북도 현지도도 20돌 기념보고회(3.14 청진시)
 - 기념보고 : 이근모(함북도 당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 3.16 · 조-러 경제 및 문화협조 체결 46돌즈음 친선모임(주북 러시아 대사관)
 - 전국 청소년학생 ‘봄철 나무심기’ 쫄기모임(3.15 당창건 기념탑 건설장)
 - 김중린 · 장철 · 최룡해(보고자) 등 참석
- 3.17 · 당중앙위, 남포항에 감사문 전달
 - 당 · 정 중앙기관 간부 및 근로자들의 나무심기 쫄기모임 (당창건 기념탑 건설장)

- 3.18 · 당중앙위, 청진항과 3대혁명소조원들에 축하문 전달
- 당중앙위, 3.17 수력발전종합기업소와 3대혁명소조원들에 축하문 전달
- 3.20 · 김정일, 체신부 및 제련공업부문에 감사 전달
- 3.22 · 김정일, 창광원에 감사 전달
- 어부절
 - 김일성의 신포수산사업 등 동해지구수산부문 현지지도 ('57.3.22)기념 제정
- 『파키스탄의 날』즈음 기념집회(3.21 천리마문화회관)
- 평방, 모스크바에서 『조-러 경제 및 문화협조협정』체결 46돌 기념집회 진행 보도
- 3.23 ·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우 일행, 평양 출발
 - 베를린 개최 제3차 경수로제공 협상 참가차
- 주북 파키스탄대사(램딜 바피), 『파키스탄의 날』(3.23)즈음 연회 배설(평양 옥류관)
- 평방, 전국농업근로자·여맹원들의 나무심기운동 궤기모임(만경대, 대성산 등) 보도
- 3.24 · 중방, 김정일의 함남도 현지지도('75.3) 20돌 기념보고회 현지 진행 보도
- 사로청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 개최
- 당중앙위, 모란봉 합영회사에 감사 전달

- 3.25 · 김일성의 금속공업성 현지지도 30돌 기념보고회
 - 이종옥 · 한성룡 · 최영림 등 참석
- 봉화화학공장 창립 20돌 기념보고회(3.23)
 - 평북도 당 책임비서(김학봉) 등 참석
- 농근맹 중앙위 제24차 전원회의 개최(3.23 평양)
 - 최성숙(농근맹 중앙위원장) 보고 및 결정서 채택

- 3.26 · 김일성 평안북도 현지지도 20돌 기념보고회
(3.23 신의주시)
 - 평북도 당 책임비서(김학봉), 행정경제위원장(염재만) 등 참석

- 3.28 · ‘다홍왜 · 요영구 회의’ 60돌기념 과학연구토론회 개최
(3.27 인민대학습당)
 - 중방, 순천세멘트연합기업소와 2.8 직동청년간 장거리 벨트콘베어 건설공정 90% 진척 보도

- 3.29 · 일본 연립3여당 대표단 평양 도착(3.28)
 - 자유민주당(와타나베 미치오 중의원의원), 사회당 (구보와타루 참의원의원), 사키가케(하토야마 유키오 중의원의원) 등
- 당대표단, 일본 연립3여당 대표단과 회담
(3.28 만수대의사당)

- 3.29 - 김용순(당비서), 원동구(당부장), 김양건(당부부장), 이종혁(당부부장), 이성호(조선대외문화연락협회 부위원장) 등 참가
- 3.30
- 김정일, 군민일치 모범단위에 감사 전달
 - 대외경제위원회 조선국제합영회사, 지방공업부 직매점 등
 - 강성산, 일본 연립 3여당 대표단과 담화 (3.29 만수대의사당)
 - 검덕광업연합기업소(함북 단천시)에서 『전국 공구 및 부속품 전시회』 개최
 - 중방, 일본 연립 3여당 대표단과 『조·일회담 재개를 위한 합의서』 채택 보도
 - 일본 연립 3여당 대표단 귀국(3.28 입북)
- 3.31
- 제10차 중앙과학기술축전 폐막(3.30)
 - 『여맹』 중앙위 제21차 전원회의 개최(3.30)
4. 3
- 김정일, 경암산수출피복공장·사리원수출피복공장에 감사 전달(4.2)
4. 5
- 조총련, 일본 여당 3여당 대표단과 조-일회담 재개 합의서 채택관련 김정일에 감사 전달(4.3)
 - 조-중 해양부문 과학기술협조 및 교류에 관한 합의서 조인

- 4. 6 · 식수절
 - 당·정간부들, 평양 시내 및 인근 혁명사적지에 기념식수
- 4. 8 · 체신절
 - 김일성의 “체신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제하 노작발표
(’46.4.8) 기념일
- 4. 9 · 평방, 4.5 북경에서 『조-중 해양부문 과학기술협조 및 교류에 관한 합의서』조인 보도
- 4.10 · 김정일, 군민일치 모범단위 감사 전달
- 4.12 · 중방, 『제23차 제네바 국제발명 및 새기술·새제품 전람회(3.31~4.9)』에서 입상 보도
 - 금메달 3개, 금은메달 2개, 동메달 1개 수상
- 음향설비 생산종합기지 『메아리 음향사』조업식
(4.11 평양 통일거리)
- 4.13 · 간니-시정간 철도전기화공사 완공 개통식(4.12)
 - 이용무(교통위원장), 김원선(평양 철도국장) 등 참석
- 당중앙위, 정춘실운동 모범단위 칭호 수여
 - 대상 : 신계군 탁아소 유치원 물자공급소·성천군 상업
관리소·부재산광산 노동보호물자공급소
- 황해남도 청수도 간석지 건설 준공식(4.12)
 - 백범수(황남도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최흥주(황남도 행정경제위원장) 등 참석

- 4.14 · 직맹 · 농근맹 · 여맹, 4.15즈음 김정일에 대한 총성맹세
모임 진행
- 4.15 · 김정일, 조총련에 교육원조비 · 장학금(일화 8,333만엔)
송금
 - 금번까지 도합 131차례, 총액 423억 9천 668만 2,433엔
송금
- 김정일, 의학과학연구원 의학생물연구소 과학자 · 기술자에
감사 전달
- 4.16 · 외교부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4.15)
 - 미-북한 경수로 협상 진행(4.12~13) 결과 설명
-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과학부 공학 및 기술국장
『 보리스 베르코프스키 』 평양 도착(4.15)
- 4.18 · 김정일, 검덕광업연합기업소 지원 단위 · 근로자 · 학생에
감사 전달
 - 사로청중앙위 · 직총중앙위 · 해외동포영접총국 · 보건부
치료지원대 · 금야군 금야고등중학교 등
- 4.19 · 태국 국회 하원 외교위원회 대표단 및 정부경제대표단,
만수대 김일성 동상 참배(4.18)
-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과학부 공학 및 기술국장 4.18
귀국(4.15 입북)

- 4.20 · 김정일, 검덕광업연합기업소 금골분광산 당세포 당원들에 『친필 서한』 전달
 - 내용 : “당은 우리 로동계급을 굳게 믿습니다.
1995.4.12 김정일 ”
- 4.21 · 김정일, 평양선교피복공장 선동원 등에 감사 전달
 - 중방, 금릉2동굴공사 완공 단계 보도
 - 김일성의 신의주법랑철기공장 현지도도 40돌 기념보고회 (4.19 신의주)
 - 정무원 총리 강성산, 태국 정부경제대표단 『우타이 핼차 이촌』상업상 일행과 환담(만수대의사당)
- 4.22 · 베를린 경수로협상 대표단(단장:김정우) 귀국
 - 외교부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
 - 제3차 베를린 경수로 전문가 협상 결렬관련
- 4.23 · 농촌진출 외교부 과장(방정남)에 김정일의 ‘높은 평가’ 전달 및 충성 결의모임
 - 강석주(외교부 제1부부장) 참석
- 4.24 · 조선직맹대표단(단장:직총중앙위 부위원장 이진수) 중국·인도 방문차 평양 출발
- 4.25 · 김정일, 인민군 원호모범단위에 감사 전달
 - 국가과학원 함흥분원 혁명사적 보존연구소 등

- 4.25 · 당중앙위, 정춘실운동 모범단위 칭호 및 깃발 수여
 - 신계군 탁아소 유치원 물자공급소, 성천군 상업관리소, 부래산광산 노동보호물자공급소
- 4.27 · 신의주시 김정일 현지도('75.4.27) 20돌 기념보고회 (4.26)
 - 김학봉(평북도당 책임비서) · 이덕인(신의주시 당책임비서) 등 참석
- 4.28 · 김정일 노작발표 10돌기념 연구토론회 (4.26 중앙노동자회관)
 - 노작명 : “근로단체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
- 4.29 · 김정일, 『국가과학원』현지도 방문(4.28)
- 5. 1 · 당창건 50돌즈음 당중앙위 구호(총 281개) 발표
 - 당·정간부들, 5.1절관련 각지역 공장·기업소 분산·방문
 - 태국 친선대표단 귀국
- 5. 5 · “당중앙위 구호” 관철을 위한 평양시 군중대회 개최
 - 이종옥, 한성룡, 최태복, 홍성남 등 당·정 고위간부 참석
- 5. 6 · 김정일, 검덕광업연합기업소 등 51개소에 감사 전달
 - 김부자 평안북도 현지도 10돌 기념보고대회 개최 (신의주)

- 5. 7 · 황남 배천군 등, 당 중앙위원회 구호관철 궤기모임 개최
- 5. 8 · 평안남도·황해남도, 당중앙위 구호관철 군중대회 개최
 - 서해갑문 바다쪽에 해수욕장 건설
- 5. 9 · 김부자의 6월4일 차량종합기업소 현지지도 30돌 기념보고대회 개최(5.5)
- 5.10 · 황해북도·개성시, 당중앙위 구호관철 궤기대회
- 5.11 · 김정일, 남포시 천리마구역 고창협농에 감사 전달
 - 함경남도·강원도·양강도, 당중앙위 구호관철 군중대회 진행
- 5.12 · 남포시 강서구역 청산협농, 올해 첫모내기 시작
 - 조선국제합영회사 제8차 이사회회의(만수대의사당)
 - 북·중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34차회의
 - 조·중 국경하천운항협조위원회 제34차회의 합의서 조인
- 5.13 · 김일성부자 강원도 현지지도 30돌 기념보고회 개최
 - 인민무력부, 『당중앙위 구호』관철 집회 개최
 - 북한-리트바,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 조인
- 5.14 · 남포시, 당중앙위 구호관철 군중대회 개최
 - 조선직맹대표단, 중국, 인도 방문후 귀환

- 5.15 · 속도전청년돌격대 사회주의 건설에 위훈을 떨치고 있다고 선전
 - 함경북도·자강도, 당중앙위 구호관철 궤기대회 개최
 - 속도전청년돌격대 창립 20돌 기념보고대회 개최 (인민문화궁전)
 - 북한-이란 친선주간 설정
- 5.16 · 김정일, 화학공업부 등에 감사 전달
 - 송림사 등, 『당중앙위 구호』관철 궤기대회 개최
- 5.17 · 당원 돌격대 등 당중앙위 구호관철 궤기모임 개최
- 5.18 · 검덕 등 당중앙위 구호관철 궤기모임 개최
- 5.20 · 당중앙위, 청류다리 건설 참가 인민군에 감사 전달
 - 회령-학송간 철도전기화 제2단계 공사 완료를 위한 청년 돌격대 궤기모임(5.19)
- 5.21 · 김정일, 인민군대 원호사업에 모범을 보인 개천철도국 등에 감사 전달
 - 김정일, 봉화총국에 감사 전달
 - 김일성 보통강 개수공사 착공식 참석 49돌즈음 근로자 모임 개최(평양)
- 5.22 · 김정일, 안주지구 탄광연합기업소 당중앙위 등에 감사 전달

- 5.22 · 철도대표단(단장: 박용석), 베트남 향발
- 5.23 · 김정일, 검덕광업연합기업소 지원 모범직맹 조직들에 감사 전달
 - 평양 경공업대학을 한덕수 경공업대학으로 명명
- 5.24 · 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 결성 40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2.8 문화회관)
- 5.25 · 김정일, 『재일 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 시킬데 대하여』 서한 발표
 - 이성록(국제무역촉진위원장), 일본 방문중 조건없는 남한 쌀 수용의사 표명
- 5.26 · 김정일, 2.8세멘트연합기업소 등에 감사 전달
 - 당창건 기념탑 골조콘크리트공사 완료
 - 나옹배 통일부총리, 조건없는 대북 쌀제공 발표
- 5.27 · 김정일, 인민군대 원호사업에 모범을 보인 수산부 등에 감사 전달
 - 남포제련종합기업소, 아연전해계통 생산성과 선전
 - 당창건 기념탑 건설성과 선전
- 5.28 · 김정일, 남양탄광 기술과 공정원 등에 감사 전달
 - 북한·잠비아, 당·정대표단 회담 진행
 - 남포철도분국의 화물수송 성과 선전

- 5.28 · 러시아 과학기술협조대표단 평양 도착
- 5.30 · 김정일, 군민일치의 전통적 미풍을 발휘한데 모범을 보인 단위에 감사 전달
 - 당중앙위·중앙인민위·정무원, 만경대구역 등에 순회 우승기 수여
 - 당비서 황장엽, 잠비아 부통령 접견
 - 일본 종합연구개발 이사장, 평양 도착
- 5.31 · 인민군, 금릉2동굴공사 주력
- 6. 1 · 김정일, 정무원 대외봉사국 등에 감사 전달
- 6. 2 · 김정일, 인민군대 원호사업과 군인치료사업에 모범을 보인 일군들에 감사 전달
 - 북한 상업부대표단, 중국 향발(6.1)
- 6. 3 · 김정일, 사회주의 농촌으로 진출하는 평양시 당부원들 높이 평가
 - 평양 철도국, 비료수송 주력
 - 금릉2동굴, 대중적 영웅주의가 낳은 위대한 창조물이라고 선전
 - 평방, 전국적인 모내기 실적 보도
- 6. 5 · 북한, 일본 연립3여당 통해 남한 쌀 수용의사 표명

- 6. 6 · 중방, 북한 각지 농촌들 보내기 종료 보도
- 6. 7 · 지방공업부 등 지방공업절('58.6.9 제정) 즈음 투쟁 결의
 - 총련 젊은 상공인 조국방문단, 평양 도착(6.7)
 - 단장: 손진수(재일본 조선인 상공연합회 부부장)
 - 김일성의 미림별 첫 모낸 43돌 기념보고회(6.6)
 - 보고자 : 리영균(농업과학연구원 원장)
- 6. 9 · 김정일, 인민군 원호사업 모범단위에 감사 전달
 - 김정일, 서평양 기관차대 현지지도 40돌 기념보고회 진행(6.9)
 - 보고자 : 이용무(교통위원회 위원장)
- 6.10 · 김정일, 대외경제위 당위원회 당세포 등에 감사 전달
 - 평방, 은울광산 대형장거리 벨트콘베아 선전
- 6.11 · 중방, “붉은기를 지키는 사람들” 제하의 김종태 전기 기관차 공장 소재
- 6.12 · 김정일, 동포상공인은 총련의 기본군중이며 재일 조선인 운동의 주력군이라 강조
 - 전력공업부 국장(김영달), 각지 발전소 등의 전력생산 성과 선전
- 6.13 · 김정일, 사회주의 농촌지원 모범 채광공 소행 높이 평가
 - 기계공업부 부부장(김정삼), 제품생산 혁신 선전

- 6.14
 - 김정일 평양 프로그램센터 일군들에 『감사문』 전달
 - 정부대표단, 탄자니아 정부대표단과 회담(6.14)
 - 사로청대표단(단장:최용해), 네팔 향발(6.13)
 - 북한-몽골, 수의 방역 및 수의 검역 협조협정 조인(6.8)
- 6.15
 - 김정일, 해운부 등에 감사 전달
 - 김정일, 문덕군 입석협농(김금옥) 등에 감사 전달
- 6.16
 - 중방, 김매기 전투를 위한 각지 농장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의 궤기모임 진행 보도
 - 사회주의 경쟁요강 발표 및 결의문 채택
 - 박성철(부주석), 북한-탄자니아간 공동위원회 의정서 조인(6.16)
 - 평방, 청진시 현대적 고층 살림집 건설성과 선전
- 6.17
 - 중방, 평양시 석탄공업관리국 국장(조기석) 석탄생산성과 선전
 - 북한-스위스 정기항로에 관한 협정 조인(6.16)
 - 북경에서 남북간 차관급회담 개최
- 6.18
 - 평양시 운수연합국 참모장(계수근) 궤도전차가 평양시내를 달린다고 선전
 - 벨라루시 정부 경제대표단, 평양 도착(6.17)
 - 미국 중유전문가 협상대표단, 평양 도착(6.17)

- 6.19
 - 김정일, 인민군 원호사업 모범단위에 감사 전달
 - 평남 온천군 금당협농, 김일성 현지도 1돌 기념보고회 진행
 - 보고자 : 평안남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서윤석
 - 김정일 당사업 시작 31돌 중앙보고대회 개최
 - 보고자 : 김영남(부총리)

- 6.20
 - 김정일, 공산주의적 미풍을 발휘한 군인과 종업원, 군인가족에 감사 전달
 - 평남 온천군 금당협농에 혁명사적지 건립
 - 평방,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대상설비생산 혁신 보도
 - 평방, 2.8세멘트연합기업소 세멘트 생산성과 보도

- 6.21
 - 북경의 남북회담에서 남한이 북측에 쌀 15만톤을 무상 제공한다는데 합의

- 6.22
 - 김정일, 군민일치 미풍을 발양한 천리마구역 조직들에 감사 전달
 - 육운총국내 평양 제1면거리 자동차 수송대 증송 성과

- 6.23
 - 선박공업부 국장들, 선박공업절 즈음 결의 맹세
 - 선박공업절 : '43.6.23 제정
 - 은율광산, 김정일 현지도 20돌 기념보고대회 개최(6.22)
 - 보고자 : 이송길(은율군 인민위 위원장)
 - 러시아연방 교통성 대표단, 평양 도착

- 6.23~7.1 · 이종혁(아·태 평화위 부위원장), 쌀 협상차 방일
- 6.24 · 북한 체신대표단, 중국 향발(6.24)
 - 단장: 김학섭 체신부 부장
 - 6.25 · 김정일, 회령·고성·평강 장공장 건설자들에게 감사 전달
 - 6.25 · 김정일, 애국예방약 생산공장 총련 일군들에 감사 전달
 - 6.25 · 성진제강연합기업소, 강철생산 성과
 - 6.25 · 김일성의 황해북도 농업부문 현지지도 20돌 기념보고회 사리원시에서 개최(6.24)
 - 보고자 : 최문선(황해북도 인민위 위원장)
 - 6.27 · 김정일, 모란봉합영회사에 특별 감사 전달
 - 6.27 · 북한-리트바,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 조인(5.13)
 - 6.28 · 프랑스 경제사절단, 평양 도착(6.27)
 - 단장 : 삐에르 쎄이라
 - 6.29 · 김정일, 평양시내 노동자 및 수출품 수산사업소 등에 감사 전달
 - 6.29 · 평방, 당창건 기념탑 건설상황 보도
 - 완공 예정일 : '95.10.10
 - 6.30 · 북한-일본 협상에서 북측에 쌀 30만톤(무상 15만톤, 유상 15만톤)을 제공키로 합의